

“2024·12·29...179명 희생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무안공항서 ‘기억하라...’ 주재 엄수
오전 9시3분 광주·전남 추모 사이렌
위령제·현화·기록 영상 등 닛 기록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된다.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 국제공항 2층에서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공식 추모식을 갖는다. ▶관련기사 6면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다. 추모식에는 추모위원회 위원과 참사 당시 수습에 참여했던 기관·지자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다.

공식 추모식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 광주·전남 전역에는 희생자 애도와 재발 방지의 뜻을 담은 ‘추모 사이렌’이 1분간 울린다.

이후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 단체에서 개별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다. 사전 추모공연은 ‘지박&VRI String’이 맡아 클래식 현악 4중주 연주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추모식 본행사는 단체 목업으로 시작한 뒤 유가족 대표와 주요 내빈 현화가 진행된다.

이어 ▲진실 혹은 거짓 ▲멈춰버린 시간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라는 3개 키워드로 구성된 유가족 기록 영상이 상영된다. 각 키워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과 참사 이후 바뀐 유가족들의 삶, 무관심 및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 규명 촉구 행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과 함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추모사는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 등이 낭독한다. ‘집으로 오는 길’이란 추모 주제 공연에선 희생자들이 참사 전 가족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여행 사진으로 떠나간 이들의 1년 전 모습을 재현한다. 마지막 순서인 추모 공연에선 가수 이은미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다.

공식 추모식 이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활주로 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살릴 수 있었다·밝힐 수 있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전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추모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마음 깊이 애도하며 1년 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온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돈덕 너머에 멈춰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경찰 수사 등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염원한다”며 “피해자 생계 지원과 심리 치료, 돌봄 등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것이냐”며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한 유가족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시설물과 충돌,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서형우기자



다시 ‘청와대 시대’

李대통령, 오늘 靑 첫 출근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0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4면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취임 이후 처음 출근한다.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참모들이 지근 거리에서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Today

여야, ‘통일교·2차 종합특검’ 정면 충돌 4면

“병오년 해맞이 전남으로 오세요” 5면

시·도교육감 민주진보시민주후6명 등록 7면

희망2026 나눔캠페인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

성금접수 계좌

광주사랑의열매 : 1107-021-864333(광주은행)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864333(농협은행)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남도지회

복합쇼핑몰-광주 상권 ‘상생 해법’ 찾는다

소통 기구 ‘상생발전협’ 공식 출범

市·區·지역상인·대기업·전문가참여

판로 확대·상생자금 조성 등 논의

광주에 들어설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복합쇼핑몰 조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상권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행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 공식 소통 기구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된 상권영향평가 최종보고회 결과를 출발점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제기된 지역 상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려 해법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상공인·상인연합회, 대기업,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구성·운영방향보고, 상권영향평가용역 결과 청취, 상권활성화·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안 발생 때 실무협의회를 수시 운영해 논

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매 포인트의 지역화해 전환, 소상공인 판로 확대, 상생자금 조성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협의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 조성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과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의 ‘소비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전국 사례를 보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도 있고 일부 업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만큼 지역 상권, 시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승환 대표이사